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Reaching More People, Reaching Younger People
and Reaching Diverse People



이종민 목사

“우리의 신념은 교회 개척이 가장 효과적인 전도이며, 연합감리교회의 역사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 나라 운동 역시 교회 개척을 통해 확장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1870-1920까지, 약 50년 동안 평균 하루에 교회 하나가 개척되었으며, 이로써 오늘의 연합감리교회의 초석이 만들어졌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야말로 연합감리교회의 DNA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

Path One 시작 배경

미국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연합감리교단의 교인수가 감소하는 상황을 직시하면서, 효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전략을 세우자는 안이 긴박하게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에 2004년 The National Network of Congregational Developers(연회 교회개발 디렉터들의 전국적인 모임)는 구체적으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한 전략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임은, 그 출발부터, 연합감리교회의 어느 특정 기관이 주도하여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교단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관찰과 성찰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Grassroots Movement로 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Path One Team은 교회 개척 운동의 독립성과 창의력(Out of the Box)을 발휘하기 위하여, 교단의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고, 자비량과 헌금에 의해서 매월 만나 기도하면서 전략을 세워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개척을 위한 전략위원회의 출범과 거의 비슷한 시기인 2005년 11월, 감독회의는 7 Vision Pathways를 발표하였습니다. 감독회의의 발표문 가운데 첫 번째 결의안이 Developing New Congregations이었고, 그 결의안에 따라 Path One이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합감리교회의 감독회의의 방향과 현실에서 꿈꾸는 운동이 서로 만남으로서 시너지가 형성되어지는 모멘텀이 되어 우리교단에

교회 부흥의 새로운 불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꿈을 구체적인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는 교단의 기존 시스템과 구조를 효과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Congregational Development Network과 교단의 Board/Agency의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2008년 5월 총회에 Path One Team 구성이 통과되었습니다. 5월 포트워스 총회의 결과로 내쉬빌 총회제 자훈련부(GBOD)에 독립적인 실행본부를 두게 되었고, 교단의 교회개척을 위한 전략을 세우는 Path One Team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2009-20, 12년 사역 계획

우리의 신념은 교회 개척이 가장 효과적인 전도이며, 연합감리교회의 역사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 나라 운동 역시 교회 개척을 통해 확장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1870-1920까지, 약 50년 동안 평균 하루에 교회 하나가 개척되었으며, 이로써 오늘의 연합감리교회의 초석이 만들어졌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야말로 연합감리교회의 DNA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2012년까지 1000명의 교회 개척자를 발굴하여 양육하며, 650교회를 개척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 개척 전략을 구상하면서 Path One Team이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개척자를 발굴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연합감리교회의 총회제자 훈련부가 실시한 각 연회별 조사에 따르면, 교회 개척의 가장 큰 장애물은 재정 문제가 아니라 개척자(Leadership) 문제였습니다. 이에

이종민 목사는 게렛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시카고한인연합감리교회 부목사로, 백인회중 담임목사로 섬겼다. 에큐메니컬연구원에서 12년 사역 하였으며, 2000년도부터 북일리노이연회 교회개발부 총무로 섬기고 있다. 아울러 2004년부터는 중북부한인 선교구 선교감리사직을 Volunteer로 겸직하여 수행하고 있다.

Path One 팀은 연회별로 계획된 650개의 교회 개척에는 안수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들을 발굴하여 훈련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방법으로, Path One Team은 북일리노이연회에서 실시했던 히스패닉 아카데미를 통한 평신도 사역자들의 교회 개척 과정을 모델로 하여 안수 목회자 혹은 평신도 사역자들을 훈련할 예정이며, 또한 이 훈련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계획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한인목회강화협의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속회 지도자 훈련 과정>과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에서 제시하는 <일천교회 십만제자운동>이 연합감리교회 교단적 차원에서 시작된 Path One과 같은 정신을 공유함으로써, 연합감리교회의 교회 개척이 하나의 운동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평신도 사역자나 안수 목회자 중에 교회개척의 은사를 점검해 보실 분들은 www.path1.org/support.php 웹페이지를 방문해 보십시오.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개척할 분들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가라 하시면, 여러분이 속하신 연회 교회개척 담당자나 혹은 path1@gbod.org 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